

고속국도에서의 효율적 관광지 안내를 위한 안내체계 개선 연구

성흥기*, 정규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융합연구본부

e-mail:sunghongki@kict.re.kr, ksc@kict.re.kr

A Study on Development of Efficient Highway Guide System for Tourist Attraction

Hong-Ki Sung*, Kyu-Soo Chong*

*Dept. of Future Technology and Convergence Research,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요약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광지의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다. 관광지 안내가 부족한 문제도 발생하는 반면 규정에 부적합한 관광지표지가 설치되어 도로 미관이 저해되고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받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광지 안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속국도에서의 관광지 안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고속국도에서의 효율적인 관광지 안내를 위하여 국내외 고속국도 관광지 안내현황 분석을 통하여 안내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문화유산 보유 시설은 국립공원과 관광단지의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세계문화유산 보유 시설을 고속국도 관광지 안내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운전자의 정보 판독성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회화형 관광지표지에 대한 설치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새로운 관광지표지의 설치 확대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광지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 미관 개선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통일성 있는 관광지표지 설치로 인하여 운전자 시야 및 고속국도 주행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서론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광지의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다. 관광지 안내가 부족한 문제도 발생하는 반면 규정에 부적합한 관광지표지가 설치되어 도로 미관이 저해되고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받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광지 안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속국도에서의 관광지 안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고속국도에서의 효율적인 관광지 안내를 위하여 국내외 고속국도 관광지 안내현황 분석을 통하여 안내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으로 정하고 있다. 관광지표지 설치 조건으로 독일은 개방시간, 주차공간, 도로인접성의 비교적 간단한 조건을 고려하고 있으며, 영국은 개방시간, 최소관광객, 장애인 시설, 주차공간, 도로인접성, 정부 승인 등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설치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관광지표지는 세계문화유산과 일반 관광지에 대하여 큰 상징그림을 활용하여 안내하고 있다. 영국의 관광지표지는 하나의 표지판에 여러 안내지명을 상징그림과 함께 표기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방향표지 아래 보조표지 형식으로 설치하거나 약도 형식의 관광지 안내표지로 설치한다. 웨일즈에서는 이정표지와 유사한 형태로 여러 관광지의 이정거리를 표기하여 안내하고 있다.

2. 고속국도 관광지 안내 현황 분석

2.1 국외 관광지 안내현황 분석

국내 고속국도의 효율적 관광지 안내체계 마련을 위하여 국외의 관광지 안내현황 및 관련 기준을 조사 분석하였다.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의 관광지표지 기준과 설치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외 관광지표지 설치 기준은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관광지와 더불어 문화재, 사적, 명승 등을 안내 대상

[표 1] 국외 관광지표지 설치 기준

구분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개방시간	✓	✓		✓
최소 관광객		✓		
일반 시설				✓
장애인 시설		✓		
주차공간	✓	✓		✓
도로인접성	✓	✓	✓	
정부 승인		✓		✓
관리청 허가			✓	
특별 조건			✓	✓

2.2 국내 현황 및 관련규정 분석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총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 중 세계문화유산 보유 시설은 총 12개소이고, 국가무형문화재 140종과 동물 천연기념물 66종을 제외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시설은 총 3,752개소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안내대상의 관광객 수를 조사하였으며, 국립공원의 연간 관광객 수는 1,153,794명, 관광단지의 연간 관광객 수는 534,351명으로 조사되었다. 관광지표지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도로표지규칙」으로 고속국도와 고속국도 외 도로로 구분하여 관광지 안내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고속국도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1·2종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을 안내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관광지표지는 고속국도 출구점으로부터 반경 15km 범위내에 있는 관광지로 한정하며, 출구점의 500m 전방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효율적 관광지 안내체계 개선

효율적 관광지 안내를 위하여 제안하는 고속국도에서의 관광지 안내체계 개선방안은 안내대상과 안내방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3.1 고속국도 관광지 안내대상

앞 절의 동향 분석을 통하여 국내 세계문화유산 및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문화재 보유 시설의 관광객 규모를 조사하였다. 세계문화유산 보유 시설의 연간 관광객 수는 856,596명으로 국보 보유 시설의 연간 관광객 수인 349,784명에 비하여 약 2.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고속도로에서 안내되고 있는 국립공원과 관광단지의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문화유산 보유 여부는 고속국도 관광지 안내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고속국도 관광지 안내방법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관광지 안내를 위하여 안내대상 확대와 더불어 새로운 방식의 안내표지를 제시하였다. 고속국도 운전자의 정보 판독성 확보를 위하여 관광단지, 국립공원, 종교시설, 놀이공원 등 관광지 유형별로 회화형 픽토그램 관광지표지를 새롭게 설계하였다. 고속국도 관광지표지는 해당 출구점의 전방 1.5km 지점에 별도 관광지표지를 설치하여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전자의 정보 판독성 확보를 위하여 한 개의 관광지표지에 안내대상을 4개로 제한한다.

4. 결론 및 기대효과

고속국도 관광지 안내 개선 요구로 인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광지를 안내하고자 안내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간 관광객 수를 분석한 결과, 세계문화유산 보유 시설은 국립공원과 관광단지의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세계문화유산 보유 시설을 고속국도 관광지 안내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운전자의 정보 판독성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회화형 관광지표지에 대한 설치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새로운 관광지표지의 설치 확대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광지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 미관 개선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통일성 있는 관광지표지 설치로 인하여 운전자 시야 및 고속국도 주행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년 도로표지센터 운영”, 2018년.
-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8년 도로표지센터 운영”, 2019년.

사 사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연구비 지원(20200360-0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